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양성”에 대한 논평

임 태 평

(동국대학교)

교회문헌, 즉 「사제양성교령」(1965. 10. 2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인 「현대의 사제양성」(1992. 3. 25), 그리고 교회법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자는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양성”이라는 논문에서 미래 사제의 양성기관인 신학교의 교육목표, ‘신학교 발달사,’ 및 ‘성직자 양성(과정)’이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적 매우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철학을 공부하는 토론자로서 저는 연구자의 논문에 대한 토론에 앞서 좋은 논문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먼저 연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서 저는 연구자의 논문을 지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린 후 저 자신의 궁금증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 성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목표(신학교의 교육의 목표)

그리스도를 닮는 길, 이 길만이 사제 양성의 목표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다. 사제직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직무로서 봉사직이다.(p. 53) 그리스도를 닮는 길, 그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p. 54)

2. 신학교의 발달

<유럽>

1)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이전: 조직적으로 구성된 사제양성제도가 없었다.

* 제3차 라테란 공의회(1179): 사목사의 교육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법적인 교육제도의 설정.

* 1556년 영국의 폴(Pole) 추기경에 의하여 로마에 신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이 신학교는 후에 비오 4세 교황이 세운 로마 대신학교와 합병되었다.

2)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 공의회문헌 18조: 신학교가 명명되었으며, 주교들이 신학교의 설립을 요구했다.

<한국>

* 1830년: 앵베르 주교에 의한 정하상, 이신규 등의 라틴어와 신학 교육

* 1836년: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등의 마카오에서의 신학 교육.(모방 신부의 도움으로)

* 1839년: 앵베르 주교와 정하상의 순교.

* 1855년: 제천 베론의 성 요셉 신학당(한국의 최초 신학교); 강원도 원주 부흥골의 예수성심 신학교(후에 예수성심 신학교의 용산으로 이전)

* 1914년: 대구, 유스티노 신학교 설립(경상 및 전라 지방 출신의 학생을 위한)

* 1927년: 함경도, 덕원 신학교

* 1942년: 예수성심 신학교 폐교

* 1945년: 경성, 전주공교신학교의 설립; 1947년: 성신대학으로 승격, 1959년: 가톨릭대학으로 교명변경.

* 1962년: 광주, 대진신학대학의 설립

* 1982-1991년: 대구, 수원과 부산의 신학교의 설립.

* 1993-1995년: 대전과 인천 가톨릭 대학교의 설립

현재 7개 신학교(서울, 광주, 대구, 수원, 부산, 대전, 인천)에서 사제양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생수는 1835명이다.

3. 성직자의 양성기관

1) 대신학교: 사제양성기관

교회의 문헌을 통한 사제교육의 내용과 방법: 공의회의 「사제양성교령」 「교회법전」 및 가톨릭 교육성에서 발표한 사제양성의 기본지침에 따른 「한국사제양성

지침」에 근거를 둔다.

2) 교육내용(영역)과 방법

(1) 교육의 영역: 인간교육; 영성교육; 지적교육; 사목교육

(2) 교육방법

* 인간교육: 친교를 이루는 사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 영성교육: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친교를 이루는 것.(사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영성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3대 가치 및 요구: 묵상과 참여 및 봉사. 독신생활

* 지적교육: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와 그 복음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믿을 만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교육; 어문(한문,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철학; 조직신학; 전례학; 교회사; 교회법; 선교 및 기타(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 사목교육: 목자가 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책임의 이해와 실천; 방학생 활과 본당에서의 사목실습, 현장체험 등.

3) 재교육:

* 계속교육의 필요성: 인간적, 영성적, 지적, 사목적 영역의 심화 및 확대.

* 대상: 신입(새) 사제의 교육; 보좌신부 교육; 계속교육: 특수교육; 사제평생교육.

이상과 같이 연구자는 오늘날 한국 가톨릭교에서의 사제양성을 위한 신학교의 발달 및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및 방법, 그리고 사제의 재교육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가톨릭교의 사제의 양성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연구자의 논문으로 그러한 점에서 가톨릭교의 종교지도자 양성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연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다종교사회에서 가톨릭교의 종교적 역할(타종교와의 관계에서)과 타종교인에 대한 사제와 신자들의 인식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연구자의 제한된 지면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만 혹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